

01.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

[사도행전 2:41-47]

- ⁴¹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⁴²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⁴³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⁴⁴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⁴⁵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⁴⁶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⁴⁷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제 신자는 본질적으로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적 존재입니다. 성경은 신자가 서로 하나가 된 새로운 존재, 교회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혈통적인 한 가족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한 가족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나 '자매'로 부르는 가족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재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 교회는 네 가지 일에 전념했다

[사도행전 2:41-47]

- ⁴¹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⁴²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⁴³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1.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행2:32-33).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초월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로서 네가지 일에 힘썼는데 그 중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42절)?

[사도행전 2:32-33]

³²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³³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2.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철저히 말씀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교회는 그 외에도 세 가지 일에 힘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래의 설명을 읽고 답해 보십시오(42절).

- **‘서로교제하고’** : 여기서 교제(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자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자들이 행하는 것이다. 이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된 자들이 나누는 교제이기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다
- **‘떡을 떼며’** : 주로 성찬식을 의미한다.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와 ‘음식을 먹고’가 다 나오기에 공동식사 중에 거행되는 성찬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교회적 삶은 곧 공동식사와 성찬식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 **‘오로지 기도하기를’** :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남은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하느라 힘썼던 것처럼(행1:14), 초대교회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는 믿음을 확고히 하고 악한 세력과 싸우며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3.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이 땅에 처음 세워진(신약)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42절의 ‘힘썼다’는 표현을 생각하며 초대 교회가 어땠는지 상상해 보고 서로 나눠 보십시오.

- 여기서 ‘힘썼다’는 말은 ‘전적으로 헌신하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방향과 더불어 교회의 회원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자발적으로 애써서 어떤 일을 행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신약)교회는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에 이은 승천(하늘에 오르심)입니다. 둘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주님(Lord)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스리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로 탄생된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 후 성령님을 보내신 ‘오순절 성령강림’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님을 받으면(성령의 인치) 거듭납니다(중생). 그리고 그것을 많

은 사람들(특히 모든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확정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순절 때 성경 강림 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약 삼천명이나 되었습니다(41절).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어서인지 이때의 일은 부흥의 시기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했던 120명의 제자들과 오순절 때 세례 받은 삼천 명으로 최초의 신약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교회는 처음부터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로 힘을 다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 다. 둘째로 힘을 다해 서로 교제했습니다. 셋째로 힘을 다해 떡을 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곧 예수 십자가 복음과 부활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근본인 터가 없다는 뜻입니다(고전3:11). 서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한 몸이요 한 가족인 교회의 본질이 없다는 말입니다. 떡을 떤지 않는다면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실제로 한 가족으로서의 교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아 의지하지도 않고 인도하심을 따르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절대로 이 네 가지 요소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일에 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에 그 결과의 일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자신들이 부정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특별한 공동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공동체의 특징을 보면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설명된 결과는 그 두려운 마음을 더욱 크게 했을 것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십자가 복음(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떤는 것)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서로 한 가족으로 교제하는 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교회의 곳곳에서 즉 함께 교제하며 가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 살아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전3:11]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 **교회는 한 가족이다**

[사도행전 2:44-47]

⁴⁴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⁴⁵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⁴⁶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떤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⁴⁷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자주 모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초로 탄

생된 교회는 어떻게 모였으며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46절)?

• ‘**날마다**’ : 처음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항상 거듭난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공통된 현상을 보았다. 날마다 모였기에 다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었고 서로 가진 것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44절).

• ‘**성전에**’ ‘**집에서**’ : 초대 교회 교인들이 주로 모인 장소는 두 군데였다. 성전과 집. 성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유대인들이 늘 그러하듯이 기도하거나 함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여러 집으로 나뉘어 모여서는 (혹은 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식을 거행했고(‘떡을 떤 때’)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공동식사(교제)를 했다. 그야말로 가족처럼 살았다. 특히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표현을 통해(42절에서는 ‘교제에 힘썼다’고 함) 초대 교회는 처음부터 자주 모여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2.교회가 한 가족이라면 가진 것을 함께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초로 탄생된 교회에서 각자의 소유를 어떻게 나누었습니까(44절b,45절)?

3.민기 전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했으며 어쩌면 같이 있기도 힘들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탄생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47절)? 신자들 스스로는 어떻게 반응했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 | |
|-------|--|
| 신자 | |
| 주변사람들 | |
| 주님 | |

이미 앞에서 최초의 교회가 네가지 특징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교회는 ‘한 가족과 같이 살았습니다. 민기 전까지는 서로 알지도 못했으며 설사 알았더라도 전혀 맞지 않아 사귀기 힘들었을 사람들이 마치 한 가족인 것처럼, 아니 혈연적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떠했기에 한 가족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한 진리 안에서 있었기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고전1:10). 그들은 ‘다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흠여지면 소그룹으로 여러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일 때는 ‘떡을 떤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혈연적 가족이 그러하듯이 함께 식사하며 가족으로서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기뻐했고 그 마음의 상태는 순전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몹시 기뻐했습니다. 주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교제가 매우 즐거웠습니다. 서로가 돕는

배필이기에 함께 있으면 유익하고 온전해지며 충만해졌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모든 충만함을 성도들에게 주시고 서로 섬기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 가족으로 여길 수 밖에 없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공산주의 같나요? 공산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강제적이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일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했지만 교회는 성공했습니다. 신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유롭게 나눌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행5:4). 그렇지만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서로 통용하며 필요에 따라 나누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형제자매, 부모자식이 아프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 마치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필요할 때에는 집이라도 팔아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가족이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초대 교회의 모습이 그때에만 가능했던 일이고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설교나 설명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상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이루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더 이상 이런 교회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면 모두 이런 식의 특징과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고가는 모든 세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가족이라면 정말 한 몸이라면 어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초대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요? 도대체 현실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현실입니다. 참된 현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쪼그라든 교회라는 거짓 현실에 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칭찬하게 합니다. 교회의 초월적인 모습을 보며 그것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들이 꿈꿨던 천국 같은 세상이 교회로 나타났으니 어찌 칭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날마다' 교회에 모이고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니(46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십니다(47절). 교회는 그 자체로 기적이며 능력이며 천국이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 목상과 적용

1. 초대 교회가 그러했듯이 모든 교회는 네 가지에 힘써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온 '사도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믿어 그 위에 굳건하게 서야만 나머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믿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합니까?

2.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초대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전체가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소그룹으로 나누어 모이기도 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려고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히10:25). 전체로서는 어느 정도 모입니까? 또한 집으로 초대하여(혹은 초대받아) 모이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이번 주에 각자의 집으로 초대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십시오.

[히10: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3. 참된 교회는 서로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없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행4:32-37). 이런 자세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삽니까? 최근에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집으로 초대하여(초대받아) 만날 때 자신의 것 중 작은 것이라도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 그 경험을 다음 주에 서로 나누십시오.

[행4:32-37]

³²만는 우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³³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³⁴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³⁵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³⁶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³⁷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02. 교회의 사명

[에베소서 1:3-7]

³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⁴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⁵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⁶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⁷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 교회의 머리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마음껏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넘보지 못하도록 지키시며 날마다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십니다. 교회의 인간적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대항하도록 교회에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머리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주님께 의해 세워진 직분자들의 다스림과 섬김으로 안전하며 풍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교회를 위하십니까? 주님은 친히 세우신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바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최대의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예배

[에베소서 1:3-7]

³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⁴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⁵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⁶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⁷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 성경은 '우리'(3,3,4,4,5,6절)라고 표현된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4,5절)?

| | |
|--------|--|
| 상태(4절) | |
| 신분(5절) | |

[참고]

신령한 복은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복을 의미한다. '신령한'(프뉴마티코스)은 '성령'(프뉴마)의 형용사형이다. 그러므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리킨다.

2.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4,7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들 됨의 신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것을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5절). 이것이 교회가 가진 영광이요 충만이며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3,6절)?

3. 찬송 곧 예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 곧 교회의 존재이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이므로 도리어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더 생각해야 합니까? 아래의 칸을 채우면서 그 의미를 나누어 보십시오(6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_____ 그의 _____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의 사명 중 첫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예배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우리는 한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담당하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하게 하셔서 이미 그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 어느 것 하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배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배 때 누리는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그 자체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기뻐하시며 부여하시는 은혜는 더한 감사와 예배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배는 우리가 더 온전하고 충만하게 예배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더 충만한 예배를 위한 양육

[에베소서 1:16-19]

¹⁶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¹⁷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¹⁸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¹⁹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 하나님을 더 잘 알 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18-19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성경에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성경을 읽거나 성경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고전2:13).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17절, 고전2:10)?

[고전2: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전2: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3.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잘 알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성경 본문을 읽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 [디모데후서 3:16-17] ¹⁶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¹⁷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잘 알면 더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행하는 양육이요 가르침이며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요14:9).

그런데 성경을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십자가 복음을 알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소식 곧 복음은 하늘의 일입니다. 사람은 절대 스스로의 인식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입니다(벧후1:21).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Illumination) 곧 성령님께서 알려 주시고 믿게 하시는 능력에 의지하여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이미 성령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역사가 늘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밝히 알고 더 분명하고 많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성령님의 더 큰 역사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요14:9]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벧후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예배로 초대하기 위한 선교(전도)

[로마서 1:13-17]

¹³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¹⁴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¹⁵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¹⁶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¹⁷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 모든 신자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빛진 자입니다(14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15절).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래의 성경 본문을 참고하여 말해 보십시오.

- [디모데전서 1: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 [마태복음 28:19-20] ¹⁹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²⁰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 이런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누리야 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하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알아감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양육은 선교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16-17절)?

| | |
|----------|--|
| 자세(16절a) | |
| 확신(16절b) | |
| 소망(17절) | |

3. 교회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면 교회는 그 자체로 선교(전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래의 성경 본문과 글을 읽고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 [마태복음 12: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 [에드먼드 클라우니]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 만약 그들이 모으는 자가 아니라면 헤치는 자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예배와 양육에 힘쓰면서 모으는 일은 부수적인 일로 남겨 둘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 입장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경우는 더 많다. 선교는 적은 현금 혹은 모금 여행에 지친 몇몇 선교사를 찾아 보는 것, 무시되고 있는 선교위원회에서 일하는 정도로 축소되어 있다. 그런 교회는 헤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선교를 등한시하는 회중은 쇠약해지며 곧 내적인 불화로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교회는 필연적으로, 결코 진군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매일 아침 부는 복음의

나팔소리를 듣고 환멸을 느끼는 청년들을 잃어 버릴 것이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행사 중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마치 우리가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처럼 말입니다. 선교는 모든 신자 곧 모든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양육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 더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진 자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빛진 자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이 큰 십자가 은혜를 입어 그냥 있을 수 없기에 빛진 자이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복음 전파의 준엄한 명령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딤후 4:1-2).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보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선교(전도)를 통해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무너지는 영적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귀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가족이 늘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체험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칭찬은 우리의 영으로 기뻐 춤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선교하는 교회는 더 온전하고 충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 더 양육과 훈련에 전념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는 다른 것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 양육, 선교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딤후 4:1-2]

¹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²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 목상과 적용

1.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가장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모든 은혜의 통로들(말씀, 성찬, 기도, 찬송 등)이 집중되어 있는 주일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드릴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알

려 주기에 힘을 씁니다. 교회에서의 양육과 훈련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명양식이며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배우면 충만해집니다(엡4:13).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배웁니까? 또한 얼마나 가르칩니까? 지금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자라기에 충분합니까?

[엡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3. 선교(전도)는 교회의 모든 활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각 신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선교(전도)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모든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선교를 생각해 보고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도울 수 있는지도 말해보십시오.
